

빚투 25兆로 치솟아… 증권사, 리스크관리·투자자보호 나서

신용거래용자 잔액, 연초比 61.15%↑
KB증권, 증권담보대출 일시 중단
키움증권, 대용비율 25~40% 하향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증권
가산금리 조정해 대출이자율 유지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된 증권사들이 잇달아 증권 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달 30일부터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최근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돼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한 것이다. 매도주식담보대출(단기유동성용 대출)과 신용융자 매매는 가능하다. KB증권 관계자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의해 회사별 신용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증시 활황 속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를 늘리는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고, 최근 증시 상승에 따른 리테일 신용대출 금액 증가로 규정 준수를 위해 증권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

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는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맞춰야 한다.

지난달 19일 키움증권은 신용융자 유

형 중 대용비율을 25~40%로 하향하고, 현금비율도 10% 올렸다. 대용비율은 담보로 맡긴 주식의 '인정 가치 비율'을 나 타낸다. 대출 리스크를 줄여 투자자에게 더 보수적인 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증권사들은 일부 종목의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했으며, 특정 종목의 신용·대출 거래를 제한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지난8월부터 기준금리는 낮췄지만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 이자율(최종금리)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용융자 수요가 급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 소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빚투가 급격하게 늘면서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빚투 개미'들이 증권사에서 주식 매수 용도로 빌린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잔고는 25조2726억원으로 연초 15조6823억원 대비 61.15%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5조6051억원, 코스닥시장9조667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금투협과 거래소는 증권사에도 신용융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사전에 방적 투자자보호 조치를 주문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청년층과 50·60대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신용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를 자제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단기간내에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융자 등을 활용해 변동성을 키우는 투자기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빚투 급증에 증권사들은 역대급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대가로 받는 신용공여 수익은 1조3774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미래에셋운용,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1위

기재부 평가서 2회 연속 1위
2026~2029년 주간운용사 선정
제도 운영·발전 기여 인정 받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선정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며 2회 연속 주간운용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투자플운영위원회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투자플의 주간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정성평가의 전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적극적인 전담인력 확충 등 투자플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다수 항목에서 1위를 득점했다”고 평가했다.

연기금투자플은 기획재정부가 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제도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1년부터 주간운용사로 참여하며 ▲투자 다변화 ▲위험관리 고도화 ▲공공기관 예탁 확대 ▲교육·자문체계 확립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해왔다.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올 2월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플 제도 개편안'의 방향에 맞춰 '공공투자플로의 진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기금에 대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자문활동을 통해 거래기관 수와 예탁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플 최초 벤처투자 상품을 비롯해 해외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 예탁기관의 투자 선택지를 넓혀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OCIO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로서 제도 발전과 시장 확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기관플랫폼 대표 이병성 부사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단순한 자산운용사를 넘어 예탁기관 여유자금 운용을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연기금투자플 전담운용기관으로서 더 높은 전문성과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

금융위, 예산 증액 추진 계획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신고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결과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

찰에 고발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향후 제도 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관련 예산 확충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며,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및 국회와 협의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보해 달라”며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증권, 강원 아동들에 1억 간식후원

발달장애인 제작 간식세트 제공

한국투자증권은 강원 지역 아동들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간식을 후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후원 물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그레놀라, 쿠키, 견과류 세트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물품은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추천·삼척·태백 등 강원 지역 54개 아동복지시설에 전달되어 약 1500여명의 아동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오늘 선물한 건강한 간식이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아이들의 재능을 지원하는 중장기 후원 프로젝트 '꿈을



지난달 30일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꿈·희망 물품 전달식'에서 오석진 한국투자증권 홍보실장(왼쪽)과 정지민 지파운데이션 대외협력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꾸는 아이들'을 비롯해, 이번 10월에는 지역 아동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4호점을 개관했다. 또한, '한국투자 꿈 도서관' 사업을 통해 지역 복지시설 내 노후화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허정윤 기자

고공행진 국내증시… ‘큰손·단타족’도 불장 합세

1억 이상 대량주문 52% 늘어
시가총액 회전율 0.57%

거액을 굴리는 '큰손' 개미들의 주식 시장 참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족'들도 늘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들어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1억원 이상 대량 주문은 하루 평균 2만8729건으로 9월(1만8957건)보다 52% 늘었다.

지난달 개인의 일평균 대량주문 건수는 지난 2021년 8월(3만4543건) 이후 4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 달간 코스피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와 미국 기술주 훈풍 등에 19% 급등했다.

개인의 1억원 이상 대량 주문이 가장 많이 몰린 종목은 삼성전자로 집계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들어 30일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의 대량 주문 건수는 총 6만243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미국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 대상 납품을 공식화한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치맥 회동' 후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주문 건수가 4만378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기대에 더해, 지난달 역대 최대 3분기 실적을 공개한 영향이다.

한미 원전 협력 프로젝트 '마누가(MANUGA)'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원전주인 두산에너지(2만9116건) 역시

3번째로 많이 주문했다.

뒤이어 네이버(1만8235건), 한화오션(1만7489건), 삼성SDI(1만3270건), 한미반도체(1만2980건), 현대차(1만855건) 등 순으로 주문이 많았다.

단타족도 늘었다.

지난달 코스피의 일평균 시가총액 회전율은 0.57%로, 지난 6월 0.63%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시가총액 회전율은 전체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의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 즉 손바뀜이 자주 일어났다는 의미다.

지난달 회전율은 6월과 2월(0.58%)에 이어 연중 3번째로 낮았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방산, 증권, 제약 업종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기대와 실적 사이 키 맞추기 과정에서 순환매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